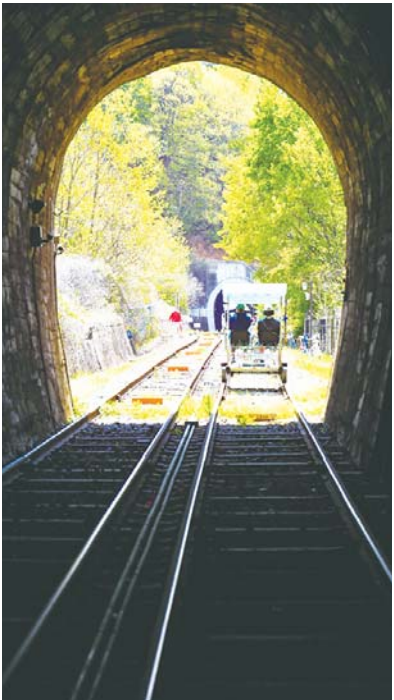


# 즐거움 · 사랑 동시에 ‘전주시민 쉼터’ 로 거듭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전주한옥레일바이크가 관광객, 가족, 연인, 친구들이 안전한 즐거움과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쉼터공간으로 새로운 단장을 마치고 손님 맞이에 한창이다.

특히 사회 트렌드에 발맞춘 전주한옥레일바이크는 안전을 강화한 점검 및 추가설치로 사계절 이용이 편리하도록 레저관광산업만의 특징을 부여해 최상의 서비스를 선보일 전망이다.



전주한옥레일바이크(대표 권병기)는 전주시민들에서 이중역페션에 제작된 철길 체험레포츠로서 전북 레저관광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전주향토기업이다



권병기 대표

때론 지역어르신 효사랑 대접에 ‘무료시승을, 때론 지역아이사랑(유치부) 희망시승을 제공하고 있는 권병기 전주한옥레일바이크 대표는 전주를 넘어 전북에서도 많은 활동을 펼치는 인물이다. 현재 전주시제향군인회 이사로서 전주자립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덕진구 덕진회 사무처장으로 지역민 상생소통의 선두자로서도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6년 전주시와 MOU체결, 덕진경찰서 감사장 2017년 한국관광협회 표창장 수상, 덕진경찰서와 4대 사회약 근절 업무협약 35시간 협력체계 구축, 2018년 전주역과의 공동발전 위한 MOU체결, 대한관광협회 이사 전주시 재향군인회 복지서비스 MOU 체결 등을 두루 거치며 전북 유일의 레저관광산업의 선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권 대표는 관광객 위한 루프탑(전망대)을 통한 이중 풍경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해 고객맞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넓은 주차장을 마련해 시원함을 선사하고 있다. 이로써 권 대표는 관광거점도시 전주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서 전주레저관광산업의 기동역할을 톡톡히 해낼 각오로 무장했다. 전주한옥레일바이크는 지난 2016년 철도공사로부터 사업 인가를 받아 총 30여억원을 투자해 현재 4인기준 60대 바이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전 구간 기차와 함께 도심속을 달리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아중 1·2차널을지나 왜망실 구간까지 왕복 약 30분 소요, 총 레일의 길이는 약 4km 정도이다. 더불어 다가오는 새해 맞이 소망과 사랑을 관광객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하트등(소원 등)’을 이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해 등을 켜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전주한옥레일바이크는 전북 최대의 관광명소인 ‘전주한옥마을 이중호수, 덕진공원, 전주역 미중길, 객리단길’ 등과 인접해 있는 전주관광의 중심지 역할도 하고 있다. 여행객 맞이에 분주한 권병기 전주한옥레일바이크 대표는 “대한민국 최대 전주관광 명소로 알리기 위해 레일바이크사업에 올인하겠다. 지역민과 함께하면 저는 행복합니다”고 흐뭇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 /김영태기자

전망대를 통해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다양한 먹거리 준비 고객맞이 열 올려  
총 30여억원 투자, 현 4인기준 60대 보유  
전 구간 기차와 함께 도심속 달릴 수 있어  
한옥마을 등과 인접 전주관광 중심지 역할 톡톡  
권병기 대표, 지역민 상생소통 활발



문화와 남원  
미래산업도시 남원  
<http://www.namwon.go.kr>

## 제10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겨울 · 눈꽃 그리고 동심으로의 여행**

<b>개 장</b>	<b>2022. 12. 25.(일) ~ 2023. 02. 12.(일)</b> <small>(임시개장 2022.12.25 ~ 12.31 / * 개장초기에는 날씨 사정으로 휴장이 될 수 있으니 사전 연락주세요 T.063-635-0301)</small>
<b>장 소</b>	<b>남원 바래봉일원 (운봉읍 바래봉길 214)</b>
<b>주요행사</b>	<b>눈썰매, 얼음썰매, 눈꽃동산, 눈꽃등반</b>